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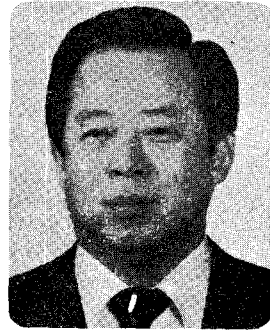
축산 뉴우스

농수산유관기관 신뢰받는 새 공직자 상 정립토록 공무수행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 농수산장관, 성실·정직·친절하게 봉사 —

정종택 농수산부 장관은 8월 1일 모든 농수산분야 공직자는 올바른 자세를 가다듬어 말은 바 소임을 성실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공정히 수행하여 신뢰받고 칭찬받는 새로운 농수산공직자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장관은 이날 농수산공무원의 자세확립에 관한 특 별지시 및 농수산유관기업체 임직원에게 보내는 서정쇄신과 관련한 부탁말씀을 통해 「국내외의 많은 시련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기강과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총화의 기반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일대쇄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에대 한 대대적인 숙정작업도 바로 쇄신을위한 일대결단인만큼 유관기업체에서도 이같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장관은 농수산부 공직자에게 보낸 지시에서 「공무를 수행할때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진취적인 자세로 임하고 무사안일한 태



(정종택 농수산부 장관)

도는 부정부조리와 같은 차원에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발생하는 부정·부조리에 대해서는 직위의 높고낮음·금액의 많고적음에 불구하고 당사자인 본인은 물론 그지휘감독의 위치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경고했다

식품원료 수입가 크게하락

— 식품제조업 원가압박덜어 —

팜油·야자油등 식품원료 수입가격이 금년
년초에 비해 20~30%나 떨어져 식품제조업
체들의 원가압박 요인을 다소나마 덜게됐다.
국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진 식물성유지

의 경우 지난 3월 보다 30%나 인하되었고,
동물성유지는 평균 20%가 떨어졌고, 열대성
식용유는 보합세 내지 약간의 하락세를 나타
내 전반적으로 떨어진 상태를 나타냈다.

반면 수입기자재의 경우는 50% 이상이 뛰
어올라 현대식 생산설비를 계획하던 각회사
들은 거의 중단상태 이거나 값이 하락할 때
를 기다리는 관망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합사료값 최고 14%까지 대폭인상

— 양축농가 재산성 악화우려 —

지난 7월 1일 사료값 자율화이후 사료값
인상시기를 관망해 오던 배합사료 메이커들
이 최근 소·돼지등 축산물시세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사료값을 최고 14%까지 일제히
인상하고 있어 양축농가의 재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배합사료 업계는 자율화 조치이후 주원료
인 대두박값이 kg당 1백75원 60전에서 약
20% 오른 2백 8원으로 인상되는 한편 환
차손 부담가중등 사료값 인상이 불가피 함에
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축산불황으로 사료값
인상을 늦추거나, 일부품목에 대해 가격인상
을 했으나 종전대로 할인판매를 하는 등 관
망을 왔었다.

그러나 8월들어 소·돼지·닭등 축산물가
격이 상승, 소의 경우 지육경락가격이 지난달
kg당 3천원에서 3천7백원으로 7백원이
상승되었으며, 돼지도 90kg짜리가 지난 5월
의 6만원에서 9만원으로 뛰어 생산비를 상
회하고, 닭도 최근 일시적인 상승세로 생산
비 7백원선에 이르자 지난달 배합사료를 최



△ 7월 1일 사료값 자율화 이후 배합사료
가 최고 14%이상 인상 되었다.

고 14.45%까지 인상하고도 제값을 못받던
제일제당, 퓨리나코리아, 대한제당 등 배합
사료 메이커들이 이달들어 인상된 값으로 판
매하고 있으며 그간 관망세를 보이던 대부분
의 메이커들이 일제히 사료값을 인상하고 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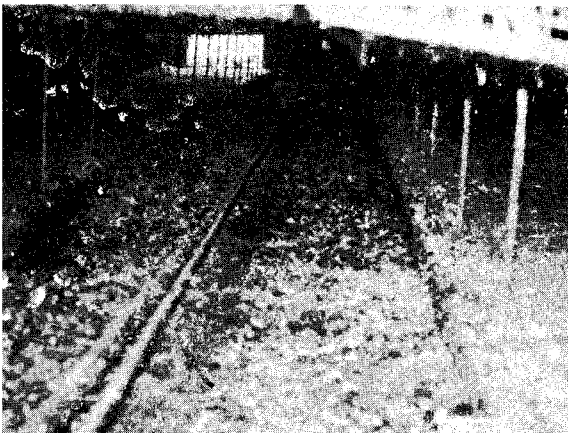
이에 양축농가는 재산성이 다시 악화될 것
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육계糞엔실리지 육우사료가치 커

— 미, 버지니아주립대학 연구팀 밝혀 —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의 연구팀에 의하면 육계분의 육우사료가치가 매우 높다고 한다.

이들 연구진은 육계분(Broiler litter)의 사료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대패밥을 깔고 계분을 받는 두 양계장으로 부터 70톤의 육계분을 채취하여 반은 수분을 40%로 조절 엔실리지를 만들고 나머지는 사면이 트이고 지붕만 되어 있는 퇴비사에 깊이 1.4m 넓이 3m 길이 13m로 쌓아둔 후 최소한 6 주후 육우



△육계분의 엔실리지는 육우사료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구 사료에 각각 20%, 40%, 60%씩 혼합하여 체중 230kg내외의 육우에게 112일간 급여한 결과 육계분의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20% 혼합구의 증체성적이 대조구의 경

우보다 상당히 높았다고 한다.

이때 사용한 기초사료에는 조단백 14%, 가소화 영양분총량 72%, 칼슘 0.54%, 그리고 인이 0.42% 함유되어 있었다고 한다. 시험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육우에 대한 육계분의 사료가치

(단위 : kg)

	처음 체중	종료 체중	일당 증체	일당건물 섭취량	증체1kg 당건물량
대 조 구 (육계분엔실리지)	231.1	332.3	0.90	7.26	8.0
20%급여구	233.8	341.0	0.96	7.6	7.9
40 "	204.4	325.1	0.87	7.5	8.7
60 "	229.7	293.3	0.57	6.5	11.4
(쌓아두었던육계분)					
20%급여구		346.4	1.03	8.2	8.0
40 "	231.5	331.4	0.89	7.9	8.9
60 "	223.8	266.5	0.38	5.8	15.1

부락공동사용

사료용 빈(BIN) 설치

— 경남, 벽지 영세 양축농가 위해 —

경상남도는 산간벽지의 영세 양축 농가에 배합사료를 적기 공급키 위해 오는 9월부터 부락공동 사료판매 빈(BIN)을 설치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종전의 단미사료 일변도에서 각종 영양분이 골고루 함유된 배합사료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산간 오지 주민들은 배합사료를 구입하려면 군이나 읍면 사무소 소재지까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수송비용을 이유로 배합사료 사용을 회피해왔다.

소련, 사료사정악화로 축산기반조성차질

— 국내사료작황부조와 사료곡물 수입사정악화로 —

소련의 축산진흥 장기계획이 1979년도 국내 곡물작황부조와 금년초 미국의 농산물 선적금지조치로 인한 사료곡물공급사정의 악화라는 암초에 부딪혀 시련을 겪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소련은 전례 없었던 곡물부족으로 인한 1975년도의 가축두수감소를 만회하는 단계에 있으며 당시와 같은 현상이 재현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다 하고 있다.

소련정부가 1970년대에 계획했던 축산진흥 5개년 계획의 목표가 국내 곡물생산의 저조와 뒤 떨어진 생산기술로 말미암아 아직도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79년 소련의 곡물생산량 1억 7천 9백만톤은 전년도의 2억 3,700만톤에 비해 크게 감소된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소련은 1979/80년도에 전년도의 2.5배에 해당하는 3,750만톤의 곡물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추정되었었다. 그리고 이중 67%에 달하는 2,500만톤은 미국에서 수입할 것으로 내다 보았으나 미국의 소련에 대한 곡물선적중지 조치로 당초 예상과는 달리 1,300만톤의 옥수수, 400만톤의 밀, 그리고 130여만톤의 대두와 대두

박의 선적이 불가능하게 되고 다만 미소곡물 거래협정(U.S.-USSR Grains Agreement)에 따라 800만톤에 해당하는 미곡물을 수입하는데 그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외의 곡물수출국에서 대체수입을 꾀하고는 있으나 1979/80년도 소련의 곡물 수입은 당초예상에 훨씬 미달하는 3,050만톤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소련의 닭·돼지수와 곡류생산·수입·사료이용

(단위: 100만두, 또는 100만톤)

년도	가 축 두 수			곡 물 수 급		
	돼지	(닭)	(소)	(생산)	(수입)	(사료이용)
1972	71.4	686.5	102.4	168.2	22.8	98
1973	66.6	700.0	104.0	222.5	11.3	105
1974	70.0	747.7	106.3	195.7	5.7	107
1975	72.3	792.4	109.1	140.1	26.1	89
1976	57.9	734.4	111.0	223.8	11.0	112
1977	63.1	796.0	110.3	195.6	19.1	122
1978	70.5	882.3	112.7	237.2	15.6	125
1979	73.5	953.2	114.1	197.0	30.5	126
1980	73.7	1,000.0	115.0	-	-	-

소비자 보호단체 협의회 소비자교육 실시

7월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부천에 있는 버들캠핑장에서 소비자 보호단체 협의회(회장 손인실)주최로 제3차 소비자 교육을 실시 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70년대에 회원단체 실무자 및 활동요원 전원이 벌여온 소비자운동을 총점검하여 80년대 소비자운동의 방향과 소비자단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농수산부, 직장정화운동추진 실무자 회의 개최

— 8 월 26 일, 농수산부대회의실에서 —

농수산부는 범 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정화운동을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키위해 산하기관, 단체의 정화운동 추진 실무자 회의를 지난 8 월 26 일 10 시 농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농수산부의 정화운동 추진계획을 시달하고 각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였으며 농수산 분야에 근무하는 모든 조직원이 투철한 국가관과 사

명감을 확립하고 내재적인 비리와 병폐 등 각종 정화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농어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진취적인 농수산 시책 구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회에서도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 자체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국영양사료연구회 특별세미나 개최예정

— 대두협회와 공동으로 —

한국영양사료연구회(회장:강면희)와 미국 대두협회 한국지사(대표:이경원)는 세계적인 영양학자 L. E. HARRIS 박사(국제사료정보센터 회장)를 초빙 오는 9 월 11 일(목) 오후 2 시 중구 회현동소재 무역회관 강당에서 특별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현대양계사와 한국사료향미양행이 공동으로 후원하며 통역은 박홍석 박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주제 및 연사는 다음과 같다.

- 국제사료정보센터 자료의 배합을 작성에의 활용방안...L. E. HARRIS 박사(국제사료정보센터 회장)
- 젖소에 대한 불소중독 증세...L. E. HARRIS 박사(유타 주립대교수)



(강면희 한국영양사료연구회회장)

- 대두박의 사료적가치...장윤환(경북대 교수)
- 저질 조사료의 축우에 대한 사료가치 증진방안...배동호(축산시험장 연구관)
- 영양성분 돈하리의 원인과 대책...한인규(서울대 교수)

낙농기술 교육 실시

— 농협, 한독시범 목장서 —

농협중앙회는 새마을 소득종합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새로젖소를 입식한 농가를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2차에 걸쳐 각각 4일씩 韓獨낙농시범 목장에서 낙농기술교육을 실시한다.

농협은 새로 낙농을 시작하는 28개 사업지구 양축농민 84명을 대상으로 사양관리, 젖소위생, 낙농경영등 이론교육과 착유, 초지관리등의 실습을 통한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농협은 새마을소득 종합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점사업 품목인 젖소, 한우, 비육우, 염소, 양봉등 축산업과 사과, 포도, 단감, 복숭아 등 과실작목등 9

개작목의 기술을 수록한 10만장의 기술서적을 발간, 해당사업지구에 배부, 과학영농을 지원키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새로 낙농을 시작하는 낙농농가에 낙농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영양실태조사 실시

— 보사부 복지시설수용자건강도 —

보건사회부는 국민영양개선과 국민 체위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보사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0개 시도의 30개지구 1천 2백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조사에서 국민의 식품·영양섭취량 및 식습관등을 파악하게 된다.

보사부는 이 조사와 함께 금년에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해 영양조사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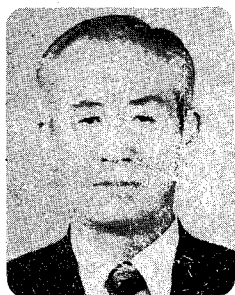
시, 전국 20개 지구 사회복지시설 1백개소(아동복지 시설 80·부녀작업보도소 5·양노시설 10)를 대상으로 식생활 및 건강조사를 벌인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의사 48명, 간호원 48명, 영양사 140명등 모두 236명을 동원, 이들 조사원이 대상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연 3일동안 계속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합리적인 식생활 개선, 국민체위향상과 건강증진, 식품수급계획 수립, 사회복지시설수용자의 급식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축산협동조합 중앙회 설립건의

— 축산단체연합회, 농협계열에서 축산 협동조합 분리, 독립주장 —



(유윤수 축산단체연합회 회장)

축산단체연합회(회장: 유윤수)는 지난 13일 증축개량협회 회의실에서 산하축산, 낙농조합 대표와 축산협동조합 자주화에 대한간담회를 개최, 축산 협동조합을 농협계열에서 분리, 독립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 했다.

이날 회의에서 축산대표들은 이제까지 우리나라 축산업계는 가축의 생산조절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기능허약으로 인하여 가축 및 축산물 가격의 폭락 등 뜻하지 아니한 손실을 강요당하고 있어도 농협의 방관, 시, 군 축협의 무기력등으로 속수무책인 실정으로 생산기반이 근본적으로 뒤흔들리고 있다고 지적, 축산업의 안정적인 기반조성과 순조로운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는 축산업자의 자율적인 협동단체가 건전하고 체계적으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축산업을 20년전에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일반농사 부문에서 분리 독자적으로 조직운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산림부문과 수산부문은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 각각 단위조합과 동 중앙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통물량이 산림이나 수산부문보다 많고 산업자원 조달 및 식량자급 면에 있어서도 지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 부문만이 유독 일반 농사부문에 부속되어 있는것은 업계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정부 건의에서 축산인들은 축산업의 안정과 광의의 식량으로서 축산물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법률 제 1871호 농업기본법 제 2 조(축산대책)에 명시된 기본정신에 따라 현재 농협계열에서 특수조합 형태로 존재함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축산협동조합(낙농, 양돈, 양계, 양봉협동조합 포함)을 농협 계열에서 분리함과 동시에 동 중앙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낙농경영개선자금 8천 7백만원 배정

경상남도는 낙농경영개선 지원자금 8천 7백 18만원을 배정하고 타 용도로 전용하는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라고 해당시군에 지시했다.

도당국이 배정한 낙농경영개선 지원자금은 축사시설 4백 20개소에 6천 3백만원, 착유기 30대에 1천 2백만원, 냉각기 27대에 5백 67만원, 예취기 10대에 6백 51만원으로 4백 87건에 8천 7백 18만원이다.

비축돈육 일반정육점에도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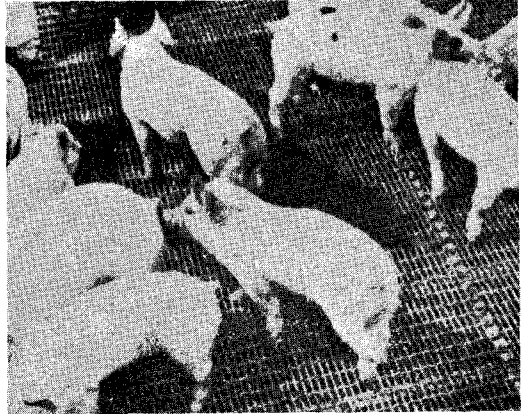
— 돼지고기 가격안정위해 —

농수산부는 돼지고기의 원활한 공급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협축산물 직매장을 통해 1일 5백두씩 방출하던 비축 돼지고기를 8월25일부터 2백두씩 늘려 7백두씩 일반 정육점에도 확대방출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산지 돼지가격이 10만 원선을 육박함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앙등하고 일부정육점의 판매기피로 인한 품귀현상을 해소키위한것이다.

최근 농수산부가 현지실태를 조사한바에 따르면 5~6개월간의 돼지 출하두수가 적어도 전체사육두수의 20%선인 40만 두선은 유지되어야하나 11.3%선인 22만두선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79년도부터 금년 6월이전까지 돼지값이 하락되어 많은 농가가 돼지사육을 기피한데다가 방매현상으로 8~9월중 출하대상 돼지의 일시적인 부족현상을 야기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출하대상돈의 일시적인 부족현상은 전체사



육 두수의 44%에 달하는 육성비육돈을 농가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생산농가에서 출하적기로 관망하고 있는 추석전후를 고비로 출하두수는 점차 증대되어 수급에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돼지고기 부족현상을 빚고있는 기간중에는 육류연동기준 가격에 의하여 소비자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인상조정하는 동시에 15만두를 확보하고 있는 비축돈육을 조정방출 함으로써 일시적인 돈육부족은 점차 해결될 전망이다.

전목장의 62%가 10두 이하사육

— 서울우유, 전국목장실태조사 실시 —

우리나라 목장의 61.2%가 10두 미만의 적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전체의 43%가 부업으로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작년 12월 11일부터 1월말까지 전국 3천 9백 86개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목장실태조사에 따르면 5~10두가 40.8%인 1천 6백 27개, 1~4수가

8백 32개로 20.9%로 전체의 61.7%가 10두가 하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11~20두가 24.5%, 21~30두가 7.5%, 30~40두가 3%, 41두 이상이 3.3%로 나타났다.

경영형태별로 보면 낙농을 주업으로 하는 낙농가가 57%, 부업으로 하는 자가 43%로 소규모 낙농가는 부업으로 대규모 낙농가는 주업으로 삼는 것으로 분석 됐는데 두수별 주·부업 비율은 1~4두가 45대55, 5~10두가 68대32, 21~30두가 71대29, 31~40두가 66대34, 40두이상이 60대40으로 밝혀졌다.

돼지 「파보」ワクチン 개발

— 가축위생연구소, 이상분만 사전예방 —

농촌진흥청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새로운ワクチン을 개발 돼지의 이상분만을 95% 사전에 예방할수 있게 되었다.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朱한수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파보 วัคซีน을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 40% 예방할수 있던것을 วัคซีน을 접종하므로써 95%의 예방효과를 가져올수 있으며 보관 기간도 섭씨 4도에서 1년간 보존 할수있어 경제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어미돼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염성 이상분만의 원인별 유형을 보면 돼지 파보가 56%, 일본뇌염이 13%, 콜레라 3%, 기타28%로 나타나고 있다.

파보 바이러스 병원체가 임신중인 어미돼지에 감염되면 미라 또는 사산 유산하고 새끼를 적게 낳거나 발정하는 횟수가 많아 정반이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농어촌 유희노동력 이용

가축사육장려

농수산부는 농어촌 지역학생을 중심으로 한 유희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토끼, 닭, 산양등의 소규모 가축사육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농가의 부산물과 유희노동력을 활용 육류자원의 저변확대와 자급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해 농가에서 큰 비용이나 시설이 없이도 사육이 가능한 닭4~5마리, 토끼

1~2마리, 산양 1마리정도씩 소가축사육을 농촌에 장려키로 했다.

농수산부는 이 운동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해 농어촌지역 학생을 중심으로 추진 청 소년들이 직접 가축을 기르는 가운데 愛蓄心 과 근면성을 기르고 농어민의 육류 자원 생산에도 크게 도움을 주는등 다각적인 효과를 얻도록 이운동을 적극 추진할방침이다.

쇠고기생산의 곡류이용효율

닭고기 생산과 맞먹어

곡물이용면에서 육우와 닭은 큰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다.

미 사료곡물협회 자료에 의하면 생체 1kg 생산에 필요한 곡류소요량은 닭이 5.31kg, 육우가 5.25kg, 지육 1kg생산에 닭 7.27kg, 육우 8.35kg, 정육은 11.05kg, 11.87kg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육우의 경우는 닭이나 돼지가 이용하지 못하는 비단백질소 화합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는 면에서는 육우가 경제적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닭고기, 쇠고기 및 돼지고기 1kg 생산에 소요되는 곡물의 양은 다음과 같다.

가축별 고기 1kg 생산에 소요되는 곡류량

내 용	곡류소요량 (kg)		
	닭 고 기	쇠 고 기	돼지고기
생 체	5.31	5.29	7.09
지 육	7.27	8.35	10.13
정 육	11.05	11.87	14.53
지육+부산물	5.40	6.06	8.35

우유(牛乳) 재고 5 만 5 천톤

— 지난 상반기중 생산량 집계 —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원유 생산량은 모두 22만3천t으로 이중 79만만 소비되었을뿐 나머지 5만5천t이 재고로 남아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25일 농수산부가 집계한 올상반기중 원유생산 및 소비재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생산분에서 이월된 2만2천t을 포함한 24만5천t을 생산했으나 예년에 비해 원유 소비자가 크게 줄어들어 25% 이상이나 재고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농수산부는 이같이 원유 체화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지난해까지 계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 생활수준이 높아져 원유가 크게 부족됨에 따라 생산량을 늘렸으나 오히려 갑작스런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밖에 상반기중 유제품 체화는 모두 7백53만4천t으로 이중 분유가 5백92만8천t, 연유 1백60만6천t이다.

한편 작년말 현재 한국인의 우유 소비량은 1인당 10kg꼴인데 비해 일본50kg, 미국2백70kg, 뉴질랜드4백kg으로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유소비는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쇠고기고시가격 거의불이행

— 정육점, 연동제따른변화 제때 못알아 —

최근 일부 정육점에서는 가격 심의위가 결정한 고시가격을 지키지 않고 있는가 하면 고시가격표를 부착 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올려 받고 있는데도 규제를 못하고 있어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실정이다.

시중 정육점에 따르면 지육의 경우 도매가격이 현재 3천5백원 에서 3천8백원 까지 올랐는데도 소비자가격은 3천 1백원에 팔도록 돼있어 손해를 보지않기 위해한근에 3천2백원 에서 5백원 까지 받고 있는 업소

가 대부분 이라는 것인데 도매가격의 상승때 즉시 고시가격을 심의결정 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쇠고기값 연동제실시 이후에 지육의 경우 도매가격이 3천5백원일때 소비자 가격은 3천원, 3천 9백원~4천원 일때는 소비자 가격은 3천 4백원~3천 5백원 선에서 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결정가격을 반드시 고시한 후 팔도록 돼있다.

우유소비촉진 적극권장

— 문교부등, 각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 —

장기적인 우유체화 현상으로 유가공업계가 고심하는 가운데 그 소비촉진을 위해 각 업계가 활발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교부는 9월 1일 부터 시범급식 학교에 국민학교 우유급식을 실시하는 한편 지정된 이외의 국민학교는 우유 메이커에서 구내에 매점을 설치하여 희망하는 아동들에게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한국유가공협회(회장:최영규)로 부터 약 1억원 상당의 전지분유(2만 9천 8백 50kg)를 기증받은 문교부는 도서벽지의 시범 학교에 전지분유를 공급 급식비에서 우유급식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각 행정관서의 공식회의때 마다 커피대신 우유 음료를 실시함과 함께 서울시에서도 본청을 비롯한 산하사업소에 대한 우유소비량 추정조사를 실시 정기적으로 적정량 우유 소비를 권장키로 했다. 또 시는 단체급식

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에서도 우선적으로 우유급식을 권장키로 했고 집단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체에도 이에 대한 취지를 주지 시키기로 했다.

한편 대한 약품공업협회도 전 회원업소 임직원들에게 우유급식을 적극권장, 매월 급식계획대상인원을 종합해 보사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같이 각 업계에서는 낙농업계의 우유체화에 대한 타개로 업체도산을 막기위해 정부기관, 각 단체등에서는 농수산부의 협조를 얻어 전 국민적인 화합으로 우유소비 계몽을 실시하고 있다.

미생물로 「라이신」제조

— 제일제당개발 양산가능 입증 —

생물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아미노산의 하나로 식품 및 동물사료의 첨가제로 크게 요구되고 있는 라이신(lysine)을 미생물에 의해 제조되는 방법이 개발되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일제당 기술진이 개발, 특허제8430호로 등록된 이 발명은 토양에서 분리된 코리넨 박테리움 스트레인에 자외선 및 NTG를 처리하여 호모세린 스테오닌 및 라이신에 해를 주지않는 라이신 염산염을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것인데 유전학적으로 안정되고 발효공정의 관리가 매우 편리한 장점이 있다.

이 방법에 의해 제조된 라이신은 종래방법에 의해 제조할 경우 고수율(高收率)로 축적할 수 없는 등의 결점을 보완할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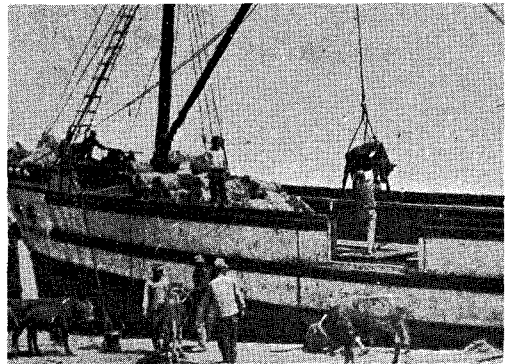
농수산정책개발협의회 발족

— 차관을 위원장으로 6 개 실무위원회 구성 —

농수산부는 농수산정책의 개발과 통계개선 등을 위해 지난 8월 8일 농수산정책 개발협의회를 구성 발족 시켰다.

차관을 위원장으로한 이협의회는 농수산정책의 개발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농정, 농산, 식산, 식량, 기획조정 및 수산등 6개 실무위원회를 두게되며 차관의 실무위원은 본부 및 산하단체 직원들로 구성되었다.

이 협의회는 앞으로 농수산정책의 개발이외에도 시책의 조정, 유통구조 개선, 농수산통계의 개선, 홍보의 강화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입안, 건의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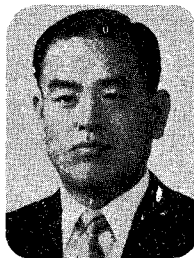
△ 농수산부는 유통개선, 통계, 홍보 등 각종 정책개발을 위한 농수산정책개발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업계 단신

○同心會 : 지난 8월 22일 안양관광호텔에서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임원개선, 회장에 이창열(이문부회장대표)씨를, 총무에 이남표(경기도 중축장장)씨를 선출.



(이 창 열)



(윤 도 진)

○윤도진(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장, 제일중축대표) : 지난달 8월중 미국의 계란의 계열생산과 현황시찰을 위해 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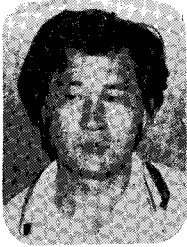
○세계Poultry Show개최 : 81년 1월 24일 부터 1주일간 미국 아틀란타에서 세계 Poultry Show 개최예정. 자세한 내용에 관심이 있는분은 본회로 연락요망.

○과학축산기구(대표 : 박만후) : 프랑스 SBM사에서 적외선 개스육추기를 수입 공급한 바 있는 동사는 화란의 세계 최대의 가공처리시설 생산업체 Meyn사와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 도계처리시설의 국내공급에 착수, 국외 중간공급자를 거치지않고 직접 실수요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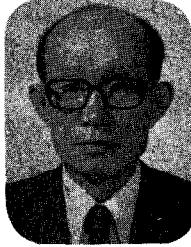
연락처 ☎ (792) 7212

○수원계우회 : 7월 20일 총회를 개최하고 회장단 개편, 회장 : 최두훈(육계업) 부회장 강석부(육계업), 김순조(채란업)
연락처 : (수원) ☎ 5-6336

○김지태(본지 편집위원, 전한협가금 영업부장) 연락처 변경 ☎ (433) 4239



(김 지 태)



(황 영 구)

○황영구(중축개량협회장) : 서독의 본에서 열리는 제 5회 홀시타인 세계대회 참석차 지난 8월 24일 출국, 덴마크등 인접제국의 낙농목장과 육가공공장, 인공수정 관계등의 시찰을 하고 9월초귀국 예정.

○한국원종농장(대표 : 강금로) : 8월15일부로 전화번호 변경 ☎ (373)4026

○이원화학(대표 : 오무웅) : 9월 1일부터 사무실이전.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194번지 (창곡빌딩 409호) ☎ (764)4586, 4587

○한국특수사료(대표 : 이중희) : 서울사무소 이전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7번지(계림빌딩 306호)

☎ (676) 4551~3

○한일농원 : 전화증설(부산) ☎ 93-7825 (춘천) ☎ 2-6061 (경북영주) ☎ 472

○삼우화학공업<주>(대표 : 이완상) : 전화번호변경 ☎ (633) 9409, 9285 (635) 3204

○동남축산센타(대표 : 윤용구) : 전화국국번 변경으로 전화번호 변경 ☎ (634) 4018

○삼일농장(대표 : 이보연) : 영업활동강화를 위해 광주출장소(소장 : 김창근)와 영주출장소(소장 : 유추식)를 개설 또 본사 영업부에 윤영식 주임과 김승덕 기사를 신규채용. (광주출장소)전남 광주시 동구 중흥동 800-2 ☎ 55-0823 (영주출장소)경북 영풍군 풍기읍 성내 2동 35 ☎ (영주)6468, (풍기)26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회장 : 김보현) : 미국캔저스주립대학교(KSU)부설 식량 및 사료곡물연구소(FFGI)와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지난 8월 18일 동원회의실에서 체결.

○양돈시설세미나 : 미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지부장 : 박영인)의 초청으로 내한한 양돈시설전문가 Ted. L. Willrich박사의 양돈시설에 관한 세미나가 9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대구, 김해에서 각각 개최.

○가을파종 목초씨앗공급 : 농협중앙회는 추파 목초씨앗 22만 7천kg을 희망농가에 공급, 정부의 초지조성사업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추파용 목초씨앗은 외국서 도입한 18만 2천 8백 29kg과 국내산 4만 4천 2백 20kg이다.

※ 기사정정

본지 지난 8월호 p. 150의 제일제당배 합사료 광주씨비스센타의 이관범씨는 본회 전 전남지부 총무로 정정합니다.

● 축산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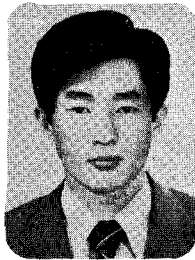
업계 인사

◎농수산부 : 축산국 낙농과장직무대리에 이창림(현 가축위생과과장), 축산과장 직무대리에 이상무(현 사료과장)씨를 발령.

◎축산진흥회(회장: 김일로) : 김동곤(전 국립종축장부장)씨를 이사로 발령



(김 동 곤)



(유 상 철)

◎TBT(대한벌크 터미날<주>) : 유상철(전 대한사이로<주>)운영부 차장)씨를 기용.

◎월간종합축산(대표: 조성용) : 편집부장에 왕성우(전 현대양계, 유경사료)씨를 기용.

◎한일농원(대표: 최한순) : 기획실에 성낙희(전 동농장 제1농원 책임자)씨를 발령.

◎풍진화학<주>(대표: 최성강) : 사세확장에 따라 사료 판매과에 조명현(전 서부사료, 료, 영진약품)씨, 박영식, (전 한국사료향미양행)씨, 강안중(서부사료), 김성만(충남대농대출)씨를 특채

◎제일사료<주>(대표: 오관영) : 대전신공장 준공으로 군산공장에 근무하던 이경산상무가 대전공장으로 전근.

광 주 부 화 장



바 브 콕

B-300V



아 바 에 이 카

사무실

전남 광주시 동구 양림동 8-15번지

전화 ⑧ 1107-2198